

# 고려~조선시대 낙동강 상류 지역의 越境地 분석 \*

정 요 근 \*\*

1. 머리말
2.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의 개관과 발생 시기
3.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의 유형
  - 1) 발생 기원에 따른 분류
  - 2)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4. 맺음말

## 1. 머리말

어떤 郡縣의 소속 영역 중 이웃한 군현의 영역을 넘어가 위치한 지역을 越境地라고 한다. 월경지는 飛入地 혹은 飛地라고도 하며, 군현 간 경계가 들쑥날쑥하게 만들어진 犬牙相入地, 즉 斗入地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光武 10년(1906) 官報의 칙령 49호에도 비입지는 “甲郡土가 越在乙郡호 者”라 하고, 두 입지는 “丙郡土가 侵入丁郡호 者”라 하여, 양자 사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경계가 들쑥날쑥하다는 인식은 다분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이 견아상입지인지 아닌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월경지는 타 군현(들)의 영역 내부로 넘어 들어가 섬처럼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월경지인지 아닌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20세기 초반까지도 전국 각지에는 다수의 월경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월경지는 각지에 골고루 분포했던 것이 아니라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했던 경우가 많다. 그 중 낙동강 상류 지역은 전남 서부, 경기 남부, 충남 내포, 경북 남부 등과 아울러 다수의 월경지가 집중 분포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일찍이 하타다 타카시(旗田巍)가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려 신분제도와 지방제도의 연관성을 검토한 이래,<sup>1)</sup> 이 일대 월경지는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sup>2)</sup>

『東輿圖』나 『大東輿地圖』 등 19세기에 만들어진 방안식 전국지도를 통해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월경지의 위치와 유팍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정밀한 대축척의 실측지도가 아닌 까닭에 월경지의 정확한 영역 범위를 고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고문헌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변환 시켜 주는 GIS 연구방법론은 월경지에 대한 훨씬 더 정밀한 복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sup>3)</sup> 이를 통해 최근에는 월경지의 발생 기원과 유형 분류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sup>4)</sup>

본 연구는 그와 같은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고려~조선시대 현재의 경북 安東·奉化·榮州·醴泉·義城 등지에 해당하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월경지로서의 발생 시점과 발생 기원 등을 추적하

1) 旗田巍, 1961 「高麗・李朝時代における郡縣制の一形態: 慶尚道安東府の屬縣・部曲の編成と飛地」『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1972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에 재수록).

2) 하타다 타카시의 연구 이래,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를 주요 소재로 삼은 연구로는 다음의 두 연구가 대표적이다. 李樹健, 1972 「朝鮮朝 郡縣制의 一形態〈越境地〉에 대하여」『東洋文化』 13(1984 「越境地考」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으로 부분개고) ; 朴宗基, 1982 「14~15세기 越境地에 대한 再檢討」 『韓國史研究』 36(2002 「14~15세기 월경지」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로 수정 보완).

3) GIS 연구방법론을 통한 조선시대 행정구역 경계의 복원에 대해서는 김종혁 2003 「朝鮮時代 行政區域의 變動와 復元」 『문화역사자리』 15-2, 113-117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GIS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월경지의 위치와 영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복원한 연구 성과로는 정요근, 2013 「전남 지역의 고려~조선시대 越境地 분석」 『한국문화』 63과 정요근, 2014 「GIS 기법의 활용을 통한 조선후기 越境地의 복원」 『역사학보』 224가 대표적이다.

4)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7-13면.

고 발생 원인에 따른 월경지의 유형별 분류 등을 통해, 고려~조선시대 월경지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의 개관과 발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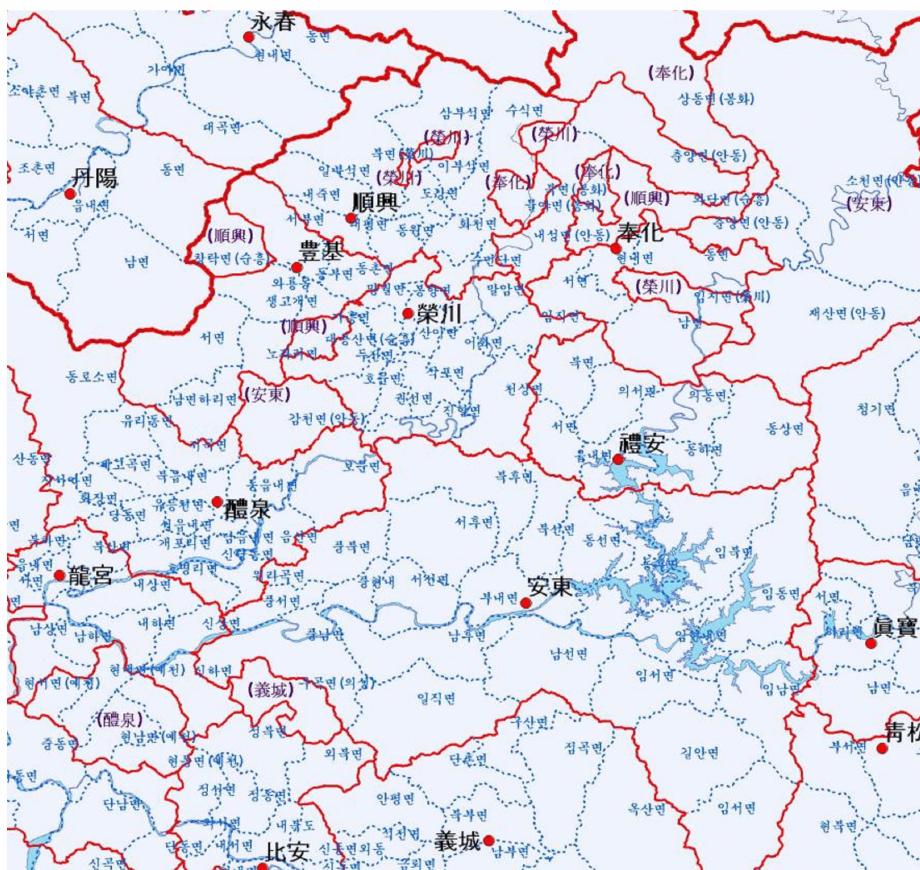
조선후기에는 낙동강 수계 상류 지역에 다수의 월경지가 존재하였다. 낙동강 상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월경지가 많이 확인되는 곳이다. 이 지역에 다수의 월경지가 존재하게 된 일차적인 요인은 지형적, 지리적 조건일 것이다. 낙동강 상류 지역은 산지 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외부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다. 북쪽과 동쪽은 태백산 등 협준한 산악지역으로 가로 막혀 있어서 외부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서쪽 역시 죽령을 제외하고는 백두대간의 산줄기로 막혀 있는 지역이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낙동강 본류나 내성천 등 낙동강 지류를 따라 형성된 협소한 평지 지대를 중심으로 거주와 경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죽령의 교통로와 연결되는 곳을 중심으로 몇몇 군현이 형성되었을 뿐, 그 외의 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독자적인 고을이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적인 중요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내륙 지역과 같이 평지 지형이 극히 드문 협준한 곳도 아니었다.

안동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대읍이다. 그리고 죽령 등의 고갯길과 가깝거나 그 길목에 위치한 榮川(현 영주시), 順興, 醫泉 등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군현으로서 신라시대 아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sup>5)</sup> 반면 奉化나 基州(현 영주시 풍기읍), 甘泉, 殷豐(현 예천군 하리면), 禮安, 豐山, 多仁 등은 고려시대에 소규모의 속현으로 존재하였다. 그 중 일부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독립 군현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지만, 나머지는 독자적인 군현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주변 군현에 소속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는 鄉·部曲 등과 같은 행정 단위가 타 지역

5) 영천, 순흥, 예천 등 3곳은 안동과 더불어 통일신라 시기 군으로 편제되어 각기 영현을 거느렸으며, 고려시대에는 안동의 속현으로 있다가 중~후기에 모두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였다. 향·부곡은 군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독자적 지역 단위이며, 그 기원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향·부곡 중 일부는 고려후기 이후에 속현의 단위로 승격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모두 혁파의 운명을 맞이하였다.<sup>6)</sup> 독자적으로 성장한 군현의 존재 보다 속현이나 향·부곡의 존재가 다수 확인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지역이 주변 군현의 영향과 통제를 깊게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도 1〉 1789년 기준 조선시대 낙동강 상류 지역 행정구역 복원도  
(정요근·김현종 제작)

6) 낙동강 상류 지역의 향·부곡 분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낙동강 상류 지역은 산지가 많고 척박한 지역이라 거주와 경작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토지의 개척, 재해나 전란으로부터의 도피, 중앙 지배 층의 낙향 등의 요인은 농업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요소와 결합하여, 이 지역으로의 주민 이주를 촉진하는 매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개발은 독자적인 군현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 지역은 주변 군현의 소속 영역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 중 상당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지도 2〉 1789년 기준 낙동강 상류 지역 행정구역 확대 복원도  
(정요근·김현종 제작)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에는 조선후기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보다 자세한 실증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sup>7)</sup> 〈지도 1〉과 〈지도 2〉에 그 대강의 위치와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2〉는 〈지도 1〉

7) 정요근, 2014 앞의 논문, 142-147면의 〈표4-1〉과 〈표4-2〉, 〈지도4-3〉과 〈지도4-4〉 등을 참조.

의 범위 중 디수의 월경지가 분포한 안동 이북 지역을 확대해서 표현한 것이다. 〈지도 1〉과 〈지도 2〉는 18세기 후반의 자료인 『戶口總數』에 수록된 촌락들의 위치 조사는 물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 편성을 기록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이나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실린 洞里 명칭을 朝鮮總督府 朝鮮臨時土地調查局 編 『(近世)韓國 五萬分之一 地形圖』에서 직접 찾아, GIS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지도 1〉과 〈지도 2〉에 나타난 월경지는 『호구총수』의 수록 지명을 기준으로, 安東 甘泉面, 順興 大龍山面과 昌樂面, 安東 才山面 · 小川面 · 春陽面 · 乃城面, 順흥 畏丹面, 榮川 林只面과 北面, 奉化 上東面 · 勿也面 · 北面, 義城 羽谷面, 體泉 4개 면(縣內面 · 縣東面 · 縣南面 · 縣西面) 등이다.<sup>8)</sup> 이곳들은 대부분 조선초기의 地理志인 『世宗實錄』 地理志와 『慶尙道地理志』에는 물론, 광무 10년 관보 수록 칙령 49호에 월경지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초기 혹은 그 이전부터 1906년까지 월경지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다만 봉화 물야 · 상동 · 북 등 3개 면은 조선초기 지리지나 광무 10년의 칙령 49호에 월경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봉화 3개 면은 지리적 입지 상으로 분명 봉화 본 영역과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봉화 3개 면 역시 월경지로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표 1〉 조선시기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

월경지	고려	현 위치
安東 才山面	德山部曲→才山縣 (충선왕 때 승격)	봉화군 재산면 소재.
安東 春陽面	加也鄉→春陽縣 (1284년 승격)	봉화군 춘양면 소재. 안동 소라부곡이 인근에 소재.
安東 乃城面	退串部曲→奈城縣 (충혜왕 때 승격)	봉화군 봉화읍 · 물야면 소재. 안동 개단부곡 · 토곡부곡이 인근에 소재.

8) 각 월경지의 명칭은 『戶口總數』에 실린 명칭을 따온 것이며, 정요근, 2014 앞의 논문, 142-144면의 〈표4-1〉과 〈표4-2〉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9) 단 순흥이 폐지되어 풍기와 榮川에 분속되었던 1457년부터 1683년 사이에는 순흥 월경지의 소속관계에 변동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 별도로 논하지 않겠다.

安東 小川面	小川部曲(안동 소속)	봉화군 소천면·석포면 소재.
安東 甘泉面	甘泉縣(안동 소속)	예천군 감천면 소재.
醴泉 4개 面 (縣內·縣東·縣西·縣南面)	多仁縣(상주→예천 소속)	의성군 다인면 소재.
順興 昌樂面	昌樂驛(순흥 소속)	영주시 풍기읍 소재.
順興 大龍山面	大龍山部曲(순흥 소속 유력)	영주시 안정면 소재.
順興 臥丹面	순흥 소속 유력	봉화군 법전면·봉성면 소재.
榮川 林只面 일부	영천 소속 유력	봉화군 명호면 소재.
榮川 北面	烏等部曲·沓谷部曲·榆水部曲 (영천 소속 유력)	3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음. 영주시 부석면·단산면 및 봉화군 물야면 소재.
奉化 勿也面	勿也部曲(봉화 소속 유력)	봉화군 물야면 소재.
奉化 北面	봉화 소속 유력	봉화군 봉성면 소재.
奉化 上東面	미상	봉화군 춘양면 소재.
義城 羽谷面	미상	의성군 신평면 소재. 의성 牛谷部曲과는 별개.

〈지도 1〉과 〈지도 2〉에 실린 월경지들의 연혁은 〈표 1〉의 내용과 같이 전체 15개의 구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예천 현내·현동·현남·현서 4개 면은 고려 多仁縣을 동일 기원으로 가진 곳들인 까닭에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榮川 북면은 3곳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3곳 모두 부곡의 기원을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영역이 협소한데다가 서로 가까이 위치했던 까닭에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였다. 각 월경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 ① 안동 4개 면(재산면·춘양면·내성면·소천면)

안동 4개 면 월경지 중 내성면은 현 봉화군 봉화읍·물야면 일부, 춘양면은 봉화군 춘양면 일부, 재산면은 봉화군 재산면 일원, 소천면은 봉화군 소천면·석포면 일원에 각각 위치하였다. 안동 재산면·춘양면·내성면 등 세 지역은 고려 시기 안동 소속의 향·부곡이었으나, 고려후기에 才山縣·春陽縣·奈城縣 등 屬縣으로 승격된 곳들이다. 그런데 세 지역과 안동 사이에 위치한 안동 속현인 봉

화와 예안이 1390년에 지방관 파견으로 안동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sup>10)</sup> 재산·춘양·내성 3개 면은 안동의 월경지가 되었다. 즉 봉화·예안 등도 안동의 속현으로 존재할 때에는 모두가 안동의 관할 하에 있었으므로 재산·춘양·내성 3개 면을 월경지라 할 수 없었지만, 봉화·예안 두 군현이 안동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재산·춘양·내성 3개 면은 월경지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안동 소천면은 속현으로 승격되지 않고 부곡으로 남아 있었으나, 재산면·춘양면과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가진 곳이었으므로 역시 안동의 월경지로 남게 되었다. 즉 안동 4개 면은 여말선초의 시기, 보다 정확히는 1390년에 안동의 월경지가 되었다.

## ② 안동 감천면과 예천 4개 면(현내면·현동면·현서면·현남면)

안동 서부의 감천면은 현 예천군 감천면 일원에 해당하며, 고려시대 甘泉縣으로 안동의 속현이었다. 감천현은 고려 현종 9년(1018) 아래 안동 속현이었다.<sup>11)</sup> 감천면이 안동의 월경지가 된 것은 안동 본 영역과 감천 사이에 예천이 독자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동의 속현이었던 예천은 명종 2년(1172) 基陽縣으로 개명하고 縣令官이 설치되었으며, 신종 7년(1204) 知甫州事로 승격되었다.<sup>12)</sup> 조선 태종 16년(1416)에는 예천으로 개명되었다.<sup>13)</sup> 1172년 현령관 파견으로 예천이 안동 소속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감천은 안동의 월경지가 되었다. 물론 속현의 지위를 지녔기에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녔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월경지의 형태로 안동의 관할 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예천 남쪽의 현내·현동·현서·현남 4개 면 월경지는 고려의 다인현에 해당하는데, 다인현은 원래 尙州의 속현이었다가 이후 어느 시기에 甫州(예천)로 이속되었다.<sup>14)</sup> 다인현의 예천 이속시기는 예천에 지방관이 최초 파견되는 1172년이다. 실제 고려중기 이후 속현에서 主縣으로 승격하는 군현의 경우, 주변 지역의 來屬이나 병합을 통해서 관할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sup>15)</sup> 다

10)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安東府.

11)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12)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1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4, 慶尙道 醫泉郡 建置沿革.

14)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尙州牧.

인현은 예천과 경계를 맞닿아 있지 않았고 두 지역 사이에는 龍宮이 위치해 있었다. 위치상으로는 다인보다 용궁이 예천에 이속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용궁은 규모가 큰 군현이었기 때문에 예천으로의 이속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던 소규모의 속현인 다인이 상주에서 예천으로 이속되었던 것이다.

### ③ 순흥 창락면

순흥 창락면은 昌樂驛이 있던 곳으로, 창락역은 죽령 바로 아래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와 그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 창락역은 순흥보다 豐基에 가까우며, 죽령과 창락역을 지나는 경상도 남쪽 방면의 교통로 역시 순흥이 아니라 풍기를 지난다. 따라서 창락역은 풍기 소속이 되어야 하지만, 순흥 소속의 월경지로 편제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순흥 소속, 『경상도지리지』에는 순흥의 월경지로 기록되어 있다.<sup>16)</sup>

1457년 순흥은 錦城大君의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어 군현 자체가 폐지되고 그 영역이 풍기와 榮川에 분속되었다.<sup>17)</sup> 순흥의 폐지 후에 편찬되었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창락역이 풍기 소속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683년 순흥의 복구 이후 창락역은 다시 순흥 소속의 월경지가 되었다. 창락역에 대한 순흥의 연고권은 그만큼 강고했던 것이다.

『高麗史』 권82, 兵2 站驛에 실린 22驛道의 내용에, 창락역은 興州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흥주는 고려초기 아래 충렬왕 때(1274~1308)까지 불렸던 순흥의 옛 명칭이다.<sup>18)</sup> 즉 고려시대에도 창락역은 순흥의 월경지였던 것이다. 『고려사』 兵志의 22역도에 대한 기록이 11세기 중반에서 12세기 전반 사이의 상

15) 이와 관련하여 정요근, 2012 「고려~조선전기 전라도 서남해상 島嶼 지역의 郡縣 편제와 그 변화」 『도서문화』 39, 90~95면에서는 1143년에 현령관이 최초 파견된 군현들의 사례를 서술하였다.

16) 『慶尙道地理志』 順興都護府에는 창락역이 基川(현 풍기) 北村을 넘어 위치한 지역으로, 『경상도지리지』 基川縣에는 犬牙處로 창락역이 基川縣 西村에 들어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7) 『輿地圖書』 慶尙道 順興 建置沿革.

18)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황을 반영한 것이므로,<sup>19)</sup> 창락역은 적어도 고려초기부터 순흥 소속의 월경지였을 것이다. 1683년 순흥의 복구 시에도 창락역이 다시 순흥의 월경지로 편성되었던 원동역은 그와 같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창락역에 대한 순흥의 연고권에 있었던 것이다. 『輿地圖書』에는 순흥의 복구 시에 영천이나 풍기로 귀속되었던 옛 영역 중에 돌려받지 못한 지역이 많다고 하였으나, 창락역은 분명히 돌려받은 영역이었다.<sup>20)</sup>

원래 안동의 속현으로서 順安(조선시대 榮川)으로 이속되었던 순흥에 지방관이 최초 파견된 시기는 충렬왕 때였다.<sup>21)</sup>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순흥은 속현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락역을 월경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경우로 丹月驛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단월역은 충주목 남쪽 10리에 위치했으며<sup>22)</sup> 현 위치는 충주시 단월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려사』 권82, 병2 참역에는 槐州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어, 충주 지경 내에 있던 단월역은 고려시대에 충주 속현이었던 괴주(괴산)의 월경지로 존재했던 것이다. 단월역은 이후 조선 세종 15년(1433)에야 충주로 이속되었다.<sup>23)</sup>

#### ④ 순흥 대용산면

순흥 남쪽의 대용산면은 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와 그 주변 지역에 해당한다. 고립된 소규모 분지 지형에 위치하였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모두 “南村 大龍山里”라는 순흥의 월경지로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옛 大龍山部曲으로 나와 있어,<sup>24)</sup> 고려시대에는 대용산부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천과 풍기의 영역으로 둘러싸여 있던 대용산부곡이 언제부터 순흥 소속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9) 정요근, 2001 「高麗前期 驛制의 整備와 22驛道」 『韓國史論』 45, 29-32면.

20) 『輿地圖書』 경상도 순흥 건치연혁 ·驛院.

21)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忠淸道 忠州牧 驛院.

23) 『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7월 신유.

24) 『세종실록』 권150, 地理志 慶尙道 榮川郡 : 『경상도지리지』 榮川郡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豊基郡 古跡.

앞서 안동 4개 면과 같이 여말선초에 월경지가 되었다고 본다면, 대용산부곡은 원래 대읍인 안동 소속이었다가 여말선초 지방제도 개편 시에 그대로 안동 소속의 월경지가 되거나, 봉화에 移屬된 買吐部曲과 같이 새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인접 군현에 이속되었어야 했다.<sup>25)</sup> 그렇다면 대용산부곡은 공양왕 때 지방관이 최초 파견되는 풍기로의 이속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순흥은 고려말에 지방관이 최초 파견된 곳도 아니고 대용산부곡과 인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용산부곡이 순흥에 최초 소속된 시기를 여말선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대용산부곡의 순흥 소속 시점은 고려시대 어느 때, 멀리는 고려초기까지도 올려볼 수 있다. 앞서 창략역도 고려초기부터 순흥의 월경지로 존재하였다. 대용산부곡이 고려초기부터 순흥 소속이었다면, 당시부터 대용산부곡은 영천을 사이에 둔 순흥의 월경지가 된다. 영천에 현령관이 최초 파견되는 1143년 이전에는 영천과 순흥 모두 안동의 속현이었다.

물론 대용산부곡이 원래 안동이나 순안(영천) 소속이었다가, 충렬왕대 순흥의 지방관 파견과 아울러 순흥의 읍세를 확장시켜 주고자 순흥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순흥에 지방관 파견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대용산부곡을 멀리 떨어져 있는 순흥으로 이속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순흥에 이속시켜야 할 영역이 필요했다면, 순흥과 가까운 곳에서 찾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용산부곡이 순흥에 속하게 된 것은 순흥의 주현 승격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영천이나 풍기와는 지형적으로 분리된 대용산 부곡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거 어느 때 순흥 주민의 이주로 인하여 순흥의 월경지로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⑤ 순흥 와단면, 영천 임지면 월경지

순흥 동쪽의 와단면은 “順興 東村 臥丹”이라 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에 모두 월경지로 기록되어 있다.<sup>26)</sup> <지도 1>과 <지도 2>에서 봉화

25) 원래 안동 소속이던 대토부곡은 안동 소속의 월경지가 되는 대신, 봉화에 지방관이 최초 파견되는 고려 공양왕 때 인접한 봉화에 편입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奉化縣 고적).

26)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봉화현 : 『경상도지리지』 봉화현.

본 영역의 북쪽과 안동 춘양면 사이로 끼어들어간 순흥의 월경지가 순흥 와단면이며, 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 동양리 · 창평리, 법전면 법전리 · 소지리, 춘양면 소로리 일대에 해당한다. 『호구총수』에 畏丹本里로 기록된 곳은 『(근세)한국 오만분지일 지형도』에 따르면 현 동양리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와단면 월경지는 와단본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지를 거의 찾기 힘든 열악한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순흥 본 영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쪽으로 봉화 勿也部曲의 경계를 越入하여 위치하였다. 와단면 지역이 언제 왜 순흥의 월경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록은 찾기 어렵다.

한편 영천 임지면은 <지도 1>과 <지도 2>에 의하면 본 구역과 월경지 구역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그 중 임지면 월경지 구역은 현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 풍호리 · 고감리 일대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지리지』에는 榮川의 東村 上居吞里 등의 촌락으로 표시되어, 봉화의 남쪽으로 월입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7)</sup> 임지면 월경지 역시 앞서 순흥 와단면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형 조건을 가진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월경지가 되었던 시기나 이유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단 林只刀部曲이 영천 읍치 동쪽 15리에 위치했다고 하는데,<sup>28)</sup> 거리상 임지도부곡은 임지면 본 영역에 해당하는 현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로 비정되어 임지면 월경지와는 관련이 없다. 순흥 와단면과 영천 임지면 월경지, 그리고 앞서 안동의 월경지들로 인하여, 조선시대 봉화와 주변 군현 간 경계는 극도로 복잡해졌다. <지도 1>과 <지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화의 소속 구역은 4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었고, 그 사이 사이로 월경지들이 분포하였다.<sup>29)</sup>

만일 앞서의 안동 4개 면 월경지들과 마찬가지로 순흥 와단면과 영천 임지면 월경지가 고려말까지 안동 소속의 땅이었다면, 두 월경지는 1390년 봉화의 주현 승격 후에도 그대로 안동 소속의 월경지로 남아 있거나, 매토부곡처럼 인접한 봉화에 이속되었을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미 주현으로서 입지가 굳

27)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봉화현 : 『경상도지리지』 봉화현.

2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榮川郡 고적.

29) 다만 『東輿圖』에는 물야면과 북면이 봉화 본 영역에 붙어 있어, 봉화의 영역은 봉화 본 영역과 상동면의 두 구역으로만 표시되었다. 『동여도』가 가지는 정밀도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했던 순흥이나 영천의 월경지로 만들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지역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라 지형적으로 위낙 열악하여 인구나 물산 면에서 소속 군현에 큰 이득이 되지도 않았다. 그런 까닭에 본 군현 주민들의 이주가 아니면 순흥과 영천의 월경지가 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두 지역이 월경지가 된 시점은 순흥과 영천의 주민들이 이주·정착했을 때부터로 볼 수 있다. 당연히 그 시기는 여말선초보다는 이전이었을 것이다. 고려초기부터일 수도 있고 두 군현이 지방관 파견과 함께 주현으로 승격되었던 때일 수도 있다. 아니면 몽골 침입과 같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이주가 발생했을 때일 수도 있다. 내륙 지역인 만큼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이다.

#### ⑥ 영천 북면

영천 북쪽의 북면 월경지는 순흥의 영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호구총수』에는 영천 북면 소속으로 梧麓里·畠谷里·枝谷里 등 3개의 촌락이 기재되어 있는데,<sup>30)</sup> 이 3곳 모두 순흥의 영역 내부에 위치한 영천의 월경지이다. 이 3곳은 서로 분리된 영역이다. 『동여도』에는 이 3곳 외에 韶川이라는 곳도 별도 영역으로 북면 월경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천리(현 경북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는 닭곡리(현 영주시 부석면 노곡리)와 바로 인접한 곳이었기에 닭곡리와 함께 하나의 영역 범위를 구성하였다. 그 외 오록리는 현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지곡리는 현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영천 북면 월경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경상도지리지』에는 영천의 북촌 畠谷 등 14개 리가 순흥의 東南北村을 월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31)</sup> 조선후기의 자료인 『호구총수』에도 이 지역이 월경지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월경지 기록을 누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2)</sup> 즉 영천 북면 지역은 순흥이 폐지되기 이전인 조선초기에도 영천의 월경지였던

30) 『戶口總數』 8책, 慶尙道 榮川.

31) 『경상도지리지』 순흥도호부.

32) 『세종실록』 지리지는 당대의 모든 월경지를 수록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월경지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21-28면, 38-41면, 46-49면, 51-54면의 내용 참조.

것이다. 오록리와 담곡리는 영천 북쪽 30리에 위치했던 영천의 烏等部曲·沓谷部曲과<sup>33)</sup> 동일한 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 역시 영천 북쪽 30리에 위치했다고 하니 榆水部曲은<sup>34)</sup> 지곡리로 비정된다.

이렇듯 영천 북면 월경지는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부곡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영천 북면이 언제 어떤 이유로 월경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영천과 순흥은 고려말 지방제도 개편 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므로, 영천 북면이 이때 월경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월경지가 된 시기는 그보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영천 북면은 순흥의 영역 내부에 섬처럼 존재한 월경지였다. 아마도 월경지로서의 발생은 영천과 관계된 주민들의 이주와 연관되었다고 여겨진다.

영천이 1143년 주현으로 승격한 것에 비해 순흥은 안동, 그리고 영천의 속현으로 있다가 13세기 후반 충렬왕 때 주현으로 승격했음을 고려하면, 영천 북면 월경지의 형성은 영천의 읍세가 순흥보다 강력했던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영천 북면 월경지 지역은 앞서 순흥 대용산면이나 와단면, 영천 임지면 월경지보다 영역은 좁지만 평지가 넓어, 거주와 경작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월경지가 된 후에 영천은 이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관할권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683년 순흥의 복구 이후에도 여전히 영천의 월경지로 유지되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였다.

#### ⑦ 봉화 3개 면(물야면·상동면·북면)

조선시대 봉화의 물야면·북면·상동면 등 3개 면은 각기 봉화의 본 영역과 떨어져 있었다. 즉 봉화의 영역은 봉화 본 영역 등 모두 4개의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자료에서는 이 3개 면을 월경지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3개 면이 타 군현의 영역을 월입한 것이 아니라, 타 군현의 월경지가 봉화 지역 내부에 침투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봉화 3개 면은 분명히 봉화 본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월경지였다.

3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榮川郡 고적.

3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榮川郡 고적.

『동여도』에는 물야면과 북면이 봉화 본 영역과 붙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동면만 분리된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여도』를 포함하여, 조선후기 고지도류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대한 영역과 경계 표시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다. <지도 1>과 <지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화 본 영역과 물야부곡 사이에는 안동 내성면이, 북면 사이에는 순흥 와단면이, 상동면 사이에는 안동 춘양면이 월경지로 존재하였으므로, 서쪽의 물야면과 북쪽의 북면 역시 봉화 본 영역과 분리된 영역이었음이 분명하다.

봉화 물야면 월경지는 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일대에 해당한다. 봉화의 주현 승격 직후인 1391년 안동 소속의 매토부곡이 봉화로 이속된 사례로 볼 때, 물야면 지역의 물야부곡도 안동 소속이었다가 봉화가 주현이 되는 1390년, 혹은 그 직후에 봉화로 이속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란히 차례로 기재된 매토부곡과 물야부곡 중에 매토부곡에 대해서만 봉화 이속 기록이 나와 있고,<sup>35)</sup> 물야부곡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것은 물야부곡이 매토부곡과는 달리 당초부터 봉화 소속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동양리·창평리 일대에 위치했던 봉화 북면 월경지는 순흥 와단면 월경지에 부속된 지역으로, 지형상 와단면을 통해야 외부 연결이 가능한 소규모 고립 지역이었다.

물야면과 북면은 모두 협소한 월경지였다. 후대인 18세기에도 인구가 매우 적었다. 『호구총수』에 기록된 영천이나 순흥, 봉화 지역 1개 면의 호구 숫자는 적게는 100여 호에서 많게는 300~400호에 달하였지만, 봉화 물야면과 북면은 각각 43호에 지나지 않았다.<sup>36)</sup> 그만큼 두 월경지는 협소한 지역이었다. 이 두 곳이 월경지가 된 이유는 재난 등으로 인한 봉화 주민들의 이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그 시기는 고려시기 어느 때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려말 지방제도의 개편과는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다. 영역과 인구가 위낙 적어서, 주현 승격으로 관할 영역을 넓혀주는 데에 별 도움도 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애당리·우구치리 등에 해당하는 봉화 상동면은 지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봉화현 고적.

36) 『戶口總數』 8책, 경상도 순흥·영천·봉화.

형상 안동 춘양면 월경지에 부속되어, 춘양면 지역을 통해야만 외부로의 연결이 용이한 고립 지역이다. 가야향, 그리고 가야향이 1284년 춘양현으로 승격한 후에는 춘양현 소속이었다가, 1390년 봉화의 주현 승격 시에 봉화로 이속되어 그때부터 봉화의 월경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야향이나 춘양현과 상관없이 당초부터 가야향을 넘어 위치한 봉화 소속의 월경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두 견해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명하기 어렵다. 다만 1390년 춘양면 월경지가 안동에 소속될 때에 함께 안동 소속이 되지 않고 별도로 봉화의 월경지로 남게 된 것은, 상동면 일대가 봉화 주민들의 이주 등을 통해 이전에 이미 봉화 주민들에 의해 개척된 지역일 가능성도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봉화 3개 면 월경지 중 물야면과 북면은 고려말보다는 이른 시기에 월경지로 편제되었으나, 상동면 월경지의 생성 시점은 고려 중기 이전부터 월경지였을 가능성도 1390년에 월경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⑧ 의성 우곡면

1906년까지 의성의 월경지로 존재했던 의성 서북쪽의 우곡면은 『호구총수』의 기록을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sup>37)</sup> 『동여도』에도 의성 월경지로 표기되어 있다. 현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덕봉리·용봉리 일대에 해당하며, 낙동강의 지류인 광산천의 상류 지점에 위치하였다. 의성 본 영역과 우곡면 월경지 사이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比安縣의 영역을 지나야 했다.

우곡면 지역이 언제 의성의 월경지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종실록』지리지나 『경상도지리지』에도 우곡면 월경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의성현치 동쪽 20리에 牛谷部曲(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로 비정됨)이 있었다고 했으나,<sup>38)</sup> 위치상 의성 읍치 서북쪽의 우곡면 월경지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우곡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었던 16세기 전반 이후에 의성의 월경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곡면 역시 주민의 이주 등으로 인해 고려시기부터 의성의 월경지로

37) 『호구총수』 8책, 경상도 의성.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의성현 고적.

존재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나 『경상도지리지』에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의성은 원래부터 읍세가 큰 군현이었으므로, 인종 21년(1143) 의성의 주현 승격 시에<sup>39)</sup> 우곡면 월경지가 안동에서 의성으로 이속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우곡면의 경우 조선초기 지리지에 월경지로 기록되지 않아, 더 이상 월경지로서의 발생 시기를 논하기는 어렵다. 단 우곡면이 조선시대에 발생한 월경지라 하더라도, 농경지가 넓은 곳도 아니고 별다른 특산물이 산출되는 곳도 아니었으므로 주민 이주 등이 동반된 월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월경지 혹은 월경지에 대한 인식이 여말선초 군현제 개편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타다 타카시는 앞서 안동 4개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월경지(飛地)는 여말선초 속현 지역의 독립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군현제의 신분제적인 성격 탈피 과정에서 생겨난 遺制라고 파악하였다.<sup>40)</sup> 박종기는 고려중기 이래 군현제 개편의 흐름 속에서 속현 및 향·부곡집단이 14~15세기에 월경지가 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농업생산력의 성장이 전제되었다고 보았다.<sup>41)</sup> 단 박종기는 월경지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14~15세기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은 飛入地(월경지)가 아니라 犬牙相入地라고 이해하였다. 최종석은 월경지 그 자체보다는 월경지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월경지 인식은 고려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적인 담론이므로 결국 월경지(비입지)가 조선초기에 발생한 것이라 하였다.<sup>42)</sup>

그러나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들에 대한 앞서의 서술은 고려말 이전에 이미 발생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월경지들이 다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월경지는 여말선초 군현제 개편의 결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발생하고 소멸하였다. 여말선초의 시기가 지난 후에도 월경지는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었다. 조선 세종대에 새로이 개척된 함경도 6鎮 지역의

39)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40) 旗田巍, 1972 앞의 논문, 48-54면.

41) 박종기, 2002 앞의 논문, 393-397면.

42) 최종석, 2012 「조선초기 越境地의 인식과 발생에 관한 재검토」 『朝鮮時代史學報』 62, 81-87면 및 93-107면.

穩城·慶源에 월경지가 생성된 경우나,<sup>43)</sup> 1476년 龍川에서 義州로 이속되면서 월경지가 된 彌羅山面 지역 등은<sup>44)</sup> 군현제도를 정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월경지였다. 1684년에 설치된 함경도의 茂山 역시 월경지를 소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sup>45)</sup> 17세기 후반에도 새로운 월경지가 생성된 것이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조선시대 월경지 15곳의 발생 시점을 구분하면, 크게 고려초기 혹은 그 이전, 고려중~후기(12~13세기), 여말선초(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 그리고 조선시대(15세기 중반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고려초기 혹은 그 이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월경지는 순흥 창락면이며, 고려중~후기에 발생한 월경지는 안동 감천면과 예천 4개 면 등 2곳, 여말선초에 발생한 월경지는 안동 재산면과 춘양면, 내성면, 소천면 등 4곳이다. 순흥 대용 산면과 와단면, 영천 임지면 월경지, 영천 북면, 봉화 물야면과 북면 등 6곳은 고려초기나 고려중~후기에 생성된 월경지이며, 나머지 봉화 상동면과 의성 우곡면 월경지 2곳은 생성시기가 불확실하다. 전체 15개 월경지 중 안동 4개 면만이 분명하게 여말선초에 발생한 월경지이고, 고려초기부터 월경지였음이 확실한 순흥 창락면을 포함하여 고려중~후기 혹은 그 이전으로 발생 시기가 올라가는 월경지가 최소 9곳이나 되었다.

전근대시기 월경지의 발생과 소멸은 어느 한 시점의 시대적 산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확인되는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 15곳 가운데, 고려말에야 월경지가 된 안동 4개 면과 월경지로서의 생성 시점이 불명확한 봉화 상동면 및 의성 우곡면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월경지적 기원은 고려중~후기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3) 『호구총수』에 의하면, 온성의 월경지는 德明面·德山面·德川面·安和面 등 4개 면이며, 경원의 월경지는 海津社이다. 그 위치는 『동여도』 등의 고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成宗實錄』 권74, 성종 7년 12월 갑오.

45) 『호구총수』에 의하면, 茂山의 월경지는 邑東海面이다. 그 위치는 『동여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의 유형

#### 1) 발생 기원에 따른 분류

낙동강 상류 지역 15곳의 조선시대 월경지는 고려시대에 다양한 형태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최근 현 전남 지역에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다양한 층위의 크고 작은 월경지들이 존재했음을 밝힌 바 있다.<sup>46)</sup> 월경지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발생 배경과 기원을 기준으로 속현 기원형, 특수 행정구역 기원형, 특수 목적 기원형, 기타 춘락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고,<sup>47)</sup> 本邑과의 주된 연결루트 및 지형적 입지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육로 연결 우선형과 해로 연결 우선형, 도서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sup>48)</sup> 또한 고려시대에는 주현뿐 아니라 속현도 월경지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도 순흥 창락역을 통해 다시 증명되었다.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던 기준에 따르면,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속현 기원형 월경지는 안동의 재산면·춘양면·내성면·감천면 등 4곳과 예천 4개 면 월경지 등 모두 5곳이며, 특수 행정구역 기원형 월경지는 안동 소천면, 순흥 창락면과 대용산면, 영천 북면, 봉화 물야면 등 5곳, 그리고 나머지 5곳은 기타 일반 춘락형 월경지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기원형 월경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낙동강 상류 지역은 내륙 지역에 해당하므로, 본읍과의 주된 연결루트의 기준에서 보면 이 지역의 월경지는 모두 육로 연결 우선형에 해당하였다.

특수 행정구역 기원형 월경지는 향·부곡 기원 월경지와 驛 기원 월경지, 所 기원 월경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의 설정도 가능하다. 다만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는 소 기원 월경지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역이나 소 기원 월경지의 경우 특수 행정구역 기원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성격상

46)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13-57면.

47) 본 연구에서는 ‘발생 배경과 기원’이라는 분류기준을 ‘발생 기원’으로, ‘기타 춘락형 월경지’는 ‘기타 일반 춘락형 월경지’, 혹은 줄여서 ‘일반 춘락형 월경지’로 수정 표현한다.

48)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7-13면.

특수 목적 기원형 월경지로도 파악할 수 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들은 발생 기원에 따라 향·부곡 기원, 속현 기원, 역 기원, 기타 일반 촌락 기원 월경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향이나 부곡이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낙동강 상류 지역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지역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안동·예천·영천·풍기·순흥·의성·봉화 등 7개 군현이다. 그 외 예안도 있으나 월경지와 관계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7개 군현에 위치했던 고려시대 향·부곡 33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에 기초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 중 10곳을 제외하면 23곳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3>에서는 고려시대 행정구역 복원도에 해당 23곳의 향·부곡 위치를 함께 표시하였다.

<표 2> 낙동강 상류 지역 향·부곡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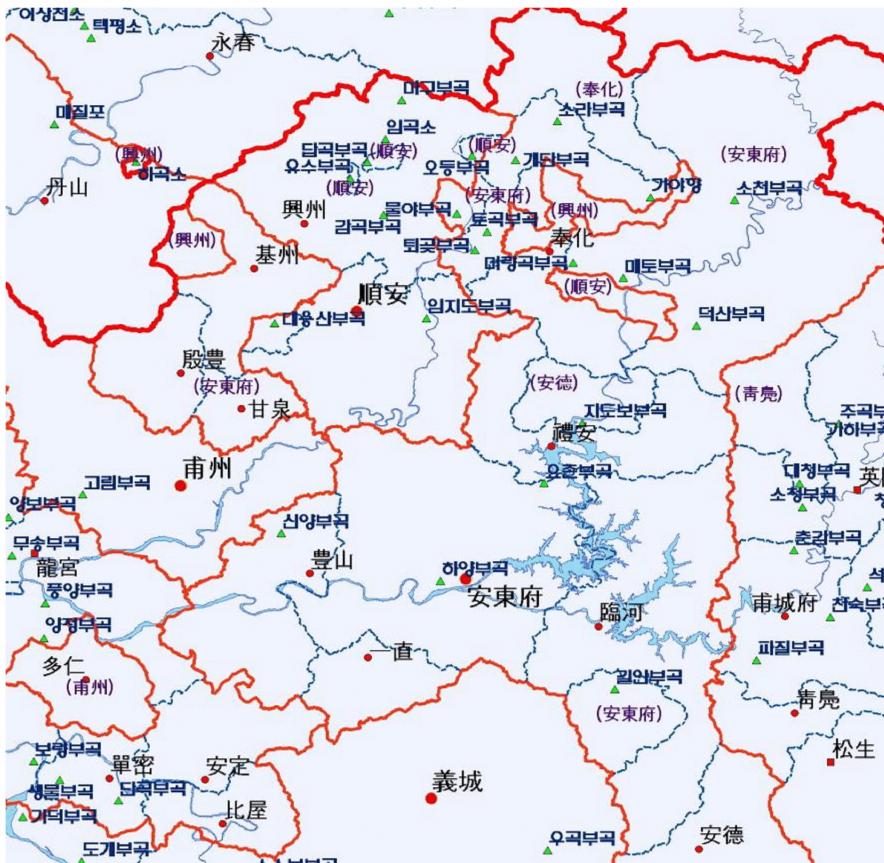
※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준

명칭	소속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 위치	현 위치
吉安部曲	안동	길안현이 됨. 안동 동쪽 50리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退串部曲	안동	내성현이 됨. 안동 북쪽 90리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加也鄉	안동	춘양현이 됨. 안동 북쪽 112리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德山部曲	안동	재산현이 됨. 안동 동쪽 75리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皆丹部曲	안동	내성현(퇴곶부곡) 북쪽 25리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小川部曲	안동	재산현(덕산부곡) 북쪽 25리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蓼村部曲	안동	안동 동쪽 35리	안동군 와룡면 나소리
河襄部曲	안동	-	안동시 옥동(추정)
新陽部曲	안동	풍산현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召羅部曲	안동	춘양현(가야향). 봉화 동촌 越入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吐谷部曲	안동	내성현(퇴곶부곡) 북쪽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高林部曲	예천	예천 서쪽 20리. 용궁 북촌 越入	예천군 유천면 고림리
孝川部曲	예천	예천 남쪽 18리	미상
寶進部曲	예천	다인 남쪽 27리	미상
伐只部曲	영천	영천 동쪽 15리	미상
馬駒部曲	영천	영천 북쪽 60리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龍山部曲	영천	영천 서쪽 20리	미상
林只刀部曲	영천	영천 동쪽 15리	영주시 이산면 내림리
省乙良部曲	영천	영천 동쪽 15리	미상
烏等部曲	영천	영천 북쪽 30리	봉화군 물야면 오록리

榆水部曲	영천	영천 북쪽 30리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沓谷部曲	영천	영천 북쪽 30리	영주시 부석면 노곡리
泥谷部曲	영천	-	미상
奈小里部曲	영천	-	미상
甘谷部曲	풍기	순흥	영주시 부석면 감곡리
大龍山部曲	풍기	순흥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皮村鄉	의성	의성 남쪽 25리	미상
新村部曲	의성	의성 동북쪽 30리	미상
屈於谷部曲	의성	의성 남쪽 5리	미상
牛谷部曲	의성	의성 동쪽 20리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勿也部曲	봉화	봉화 북쪽 10리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賈吐部曲	봉화	봉화 동쪽 14리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良谷部曲	봉화	봉화 서북쪽 7리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15곳의 월경지 중에 향·부곡의 존재가 확인되는 곳은 안동 재산면·춘양면·내성면·소천면 등 4개 면과 순흥 대용산면, 영천 북면, 봉화 물야면 등 모두 7곳이며, 이 7개 월경지에 존재했던 향·부곡은 모두 12곳이었다. 안동 4개 면은 각각 덕산부곡(충선왕 때 이후는 재산현), 가야향(1284년 이후는 춘양현), 퇴곶부곡(충혜왕 때 이후는 내성현), 소천부곡 등에 기원을 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안동 4개 면 내에는 皆丹部曲과 吐谷部曲(이상 내성면 소재), 召羅部曲(춘양면 소재) 등 3곳의 부곡이 더 위치하였다. 순흥 대용산면에는 대용산부곡 1곳이, 영천 북면에는 오등부곡·답곡부곡·유수부곡 등 3곳이, 봉화 물야면에는 물야부곡 1곳이 존재하였다.

위치가 확인되는 이 지역의 향·부곡 23곳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곳이 조선시대 월경지에 분포하였다. 여기에는 고려후기에 속현으로 승격하여 월경지가 되었던 안동 재산면·춘양면·내성면 소재 향·부곡 6곳이 포함되어 있다. 속현으로 승격했던 이 3개 면을 제외하면 안동 소천면(소천부곡), 순흥 대용산면(대용산부곡), 영천 북면(오등부곡·답곡부곡·유수부곡), 봉화 물야면(물야부곡) 등 4곳이 순수하게 향·부곡 기원 월경지라 할 수 있다. 이 4곳 월경지의 생성시기는 고려말의 안동 소천면을 제외하면 고려초기 혹은 고려중~후기로 비정된다. 순흥은 충렬왕대에, 영천은 1143년에, 봉화는 1390년에 주현으로 승격하였으므로, 이 세 고을은 각각 그 이전까지 속현으로서 향·부곡을 월경지로 거느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도 3〉 1219년 기준 고려시기 낙동강 상류 지역 행정구역 복원도  
(정요근·김현중 제작)

두 번째로는 속현 기원 월경지를 들 수 있다. 향·부곡으로서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말에 월경지가 된 안동·재산·춘양·내성 3개 면을 제외하고도, 고려시대 감천현(안동·감천면)과 다인현(예천·4개 면) 등 2곳은 속현 기원 월경지에 해당한다. 감천현은 안동의 속현이었고,<sup>49)</sup> 다인현은 상주의 속현이었다가 보주(예천)의 속현이 되었다.<sup>50)</sup> 두 지역이 안동과 예천의 관할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속현이 된 것은 앞서 서술했듯이 1172년 예천의

49)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50)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상주목.

주현 승격에 기인하였다.

감천현이나 다인현처럼, 고려시대 어떤 주현의 속현 가운데 타 주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지역에 월경지의 형태로 존재했던 속현은 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羅州 관할의 속현으로는 樂安과 谷城이 있었고, 京山府 관할 하에도 管城·利山·陽山·安邑 등이 있었다.<sup>51)</sup> 특히 무신집권기 이래 속현의 주현화가 진행되면서, 타 주현 관할 범위를 넘어선 지역에 월경지의 형태로 남게 된 속현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감천과 다인의 월경지화도 무신집권기 예천의 주현 승격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지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안동의 속현인 감천현 월경지에는 감천현 이외에도 殷豐과 基州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예천의 주현 승격은 감천뿐만 아니라 은풍과 기주도 함께 안동 소속의 월경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기주에는 1172년에 監務가 파견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으며, 고려말인 1390년부터 지방관 파견이 고정되어 은풍을 소속시켰다.<sup>52)</sup> 조선초기에는 통합군현의 명칭을 풍기로 고쳤다.<sup>53)</sup> 1390년 이후 기주와 은풍은 안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독자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감천만이 안동의 월경지로 남게 된 것이다. 즉 기주와 은풍은 1172년부터 월경지로 존재하다가 고려말에 월경지적 입지로부터 벗어난 지역이었다.

세 번째로는 驛 기원 월경지가 있다. 15곳의 월경지 중 역 기원 월경지는 순흥 창락역 1곳이다. 순흥은 충렬왕대 이전까지 안동과 영천(순안)의 속현이었기 때문에, 창락역은 속현도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 고려초에 시작된 순흥의 창락역 관할은 조선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순흥이 200여 년 이상 혁파되었을 때에는 풍기에 소속되었지만, 1683년 순흥이 복구된 이후 창락역은 다시 순흥의 월경지가 되었다. 지리적으로는 풍기(고려시대의 기주)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락역이 순흥의 땅이라는 인식은

51) 낙안과 곡성의 사례는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44-46면 참조. 한편 경산부 관할 하의 관성·안읍·이산·양산의 4현은 상주 관할 하의 永同郡과 靑山縣이 끼어들어 있어 경산부의 본 관할 구역과 분리되어 있었다.

52)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안동부.

5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경상도 풍기군 건치연혁.

수백 년이 흐르고 왕조가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일반 촌락 기원 월경지를 들 수 있다. 영천·순흥·봉화·의성 등의 소속이었던 일반 촌락 기원 월경지 5곳은 위치 미상 향·부곡이나 所와 같은 단위에서 기원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sup>54)</sup> 그러나 영천 소속으로 현 위치 미상인 부곡 5곳(伐只·龍山·省乙良·泥谷·奈小里部曲) 중 벌지·성을량 두 부곡은 영천 동쪽 15리 지점에 위치하여 그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임지면 월경지와는 거리가 맞지 않고, 나머지 3곳 역시 임지면 월경지와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다. 또한 순흥과 봉화에는 위치 미상의 향·부곡조차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의성 소속 향·부곡 4곳은 의성 서쪽에 있었던 우곡면과 방향이 전혀 상반된다.

향·부곡이 아니라면 驛이나 所와 같은 단위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의 위치는 이들 월경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동·영천·풍기·봉화 등에는 所가 없었고 순흥에 林谷所, 의성에 骨羅所, 예천에 冬老坪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임곡소(현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와 골라소(의성 동남쪽 50리)의 위치는 일반 촌락 기원 월경지 5곳과 전혀 관계없는 곳들이다. 예천에는 4개 면 월경지 외에 다른 월경지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위 5곳의 월경지는 일반 촌락의 형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조선시대에 확인되는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 15곳은 그 기원에 따라 향·부곡 기원, 속현 기원, 역 기원, 일반 촌락 기원 월경지로 분류할 수 있다. 향·부곡의 기원을 가진 월경지는 7곳(향·부곡 12곳 위치)인데, 그 중 3곳 (향·부곡 6곳 위치)은 고려후기에 속현으로 승격된 곳이라, 순수하게 향·부곡에서 바로 월경지가 된 경우는 안동 소천면, 순흥 대용산면, 영천 북면, 봉화 물야면 등 4곳(향·부곡은 6곳 위치)이었다. 안동 소천면만이 대읍인 안동 소속이었고, 나머지 3곳은 속현 혹은 속현으로부터 승격한 주현 소속의 향·부곡 월경지였다. 속현 기원 월경지 2곳(안동 감천면, 예천 4개 면)은 1172년부터 월경지의 형태로 주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 향·부곡으로서 고려후기에 속현으로 승격하였다가 고려말에 월경지가 되는 3곳(안동 재산면·춘양면·내성면)까지 포함하면, 속현 기원의 월경지는 모두 5곳이 된다. 한편 은풍·기주 2현은 1172년부

54) 낙동강 상류 지역의 향·부곡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지도 3〉의 내용 참조.

터 속현 형태의 월경지였으나, 고려말에 군현 통폐합을 통하여 주현으로 승격하면서 월경지적 입지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15곳 월경지에서는 제외되었다. 유일한 역 기원의 월경지인 창락역은 고려초기부터 순흥의 월경지로 존재하였다. 나머지 5곳은 일반 촌락의 형태로서 월경지가 된 곳들이다.

## 2)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앞서 서술한 발생 기원에 따른 월경지 분류는 월경지의 형태적, 입지적 기원에 따른 분류의 방식으로서, 월경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월경지 생성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는 대신, 과거 속현이나 향·부곡이었던 점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물론 속현이나 향·부곡이었던 곳으로서 월경지가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하지만 속현이나 향·부곡이었던 곳 중에 월경지가 되지 않은 곳들이 더 많았고, 속현이나 향·부곡이 아니었으면서도 월경지로 편성되었던 곳들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발생 원인의 요소가 반영된 월경지의 분류는 월경지의 성격과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월경지 발생의 원인을 발생 시점과 연관시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향·부곡이나 속현의 통폐합 과정에서 월경지가 생겨났다고 보는 입장으로, 월경지의 발생이 전적으로 여말선초 군현제의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월경지의 발생이 여말선초는 물론이고 고려시대부터 이미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발생의 원인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견해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으며,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서술과 보완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이수건은 월경지 발생의 원인으로 ①主邑 소속 任內의 분리 독립, ②임내의 이속, ③과거의 연고, ④魚鹽 등 물자조달, ⑤해안·도서지방에 대한 레榅의 분점, ⑥조운과 조창 등의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①~③은 고려적인 성격의 월경지이며 ④~⑥은 조선적인 성격의 월경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018년 고려의 지방제도 개편 시에는 월경지가 없었지만 이후 지방제도의 개편 과정에

서 월경지 발생이 시작되어 확산되었다고 보았다.<sup>55)</sup>

이우성은 이수건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이수건이 제시한 근거 이외에 추가적인 월경지 발생 이유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흉년, 가혹한 수취, 전쟁, 경작의 유리함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월경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6)</sup> 이우성의 이와 같은 입장은 다양한 시대적, 공간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주민들의 이주가 월경지 발생의 주요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수 역시 월경지는 고려~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쳤음을 언급하였고,<sup>57)</sup> 최병운은 월경지(비입지) 생성의 기원을 나말여초의 시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sup>58)</sup>

이상의 선행 연구는 본 연구에서의 월경지 분석과 분류에 주요한 토대가 된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월경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나 왕래보다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선행하면서 월경지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타 지역으로의 집단적 이주 또는 왕래에 기초하여 월경지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그 중 전자(Ⓐ)의 경우는 지방제도의 정비(Ⓐ-①), 어업 등의 물자 공급(Ⓐ-②), 驛이나 목장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 확보(Ⓐ-③) 등의 원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후자(Ⓑ)의 발생 원인은 국가의무의 집단적 수행이나 영토 및 토지의 개척·개간 등 국가적 필요·요구(Ⓑ-①)와, 전란·재해 등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집단적 이주(Ⓑ-②), 그리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주민들의 오랜 왕래나 교류(Ⓑ-③)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을 전남 지역 월경지에서 사례로 들면,<sup>59)</sup> 왜구의 침략을 피해 진도의 주민들이 내륙으로 이동한 경우는 Ⓑ-②의 사례로, 흑

55) 이수건, 1984 앞의 논문, 456-457면.

56) 李佑成, 1991 「李朝時代 密陽古買部曲에 대하여」『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49-152면. 이 논문의 원본은 『震檀學報』 56(1983년 발행)에 수록된 「李朝時代 密陽古買部曲에 대하여」이다.

57) 金東洙, 1992 「朝鮮初期 郡縣體制의 改編: 主縣化 및 屬縣化, 任內의 이속작업 및 越境地의 정비작업을 중심으로」『澤窩許善道教授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일조각, 342-349면.

58) 崔炳云, 1979 「高麗·朝鮮時代의 '飛入(越境)地': 朝鮮時代 全州府의 '飛入地'를 中心으로」『全羅文化研究』 1, 51-54면.

59)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13-41면.

산도나 나주군도 등 서남해상의 섬들이 나주에 속한 경우는 ②-③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②-①의 유형은 사료 상으로 그 사례를 명확히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海南 銀所面이나 康津 佐谷里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낙동강 상류 지역 개별 월경지들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속현 기원형 월경지 5곳은 관할 주현과 해당 속현의 중간에 위치했던 군현이 별도의 주현으로 승격하면서, 해당 속현이 월경지가 된 경우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선행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④-① 유형 월경지이다. 그리고 월경지로서의 생성 시점을 보면 1143년이 2곳(안동 감천면, 예천 4개면), 고려말이 3곳이다. 또한 특수 행정구역 월경지인 안동 소천면도 발생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④-① 유형 월경지에 해당한다. 즉 전체 15곳 월경지 중 6곳이 ④-① 유형 월경지이다. 하지만 ④-② 유형의 월경지는 내륙 지역인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평안도의 의주 미라산면과 함경도 6진 지역의 월경지가 대표적인 ④-② 유형 월경지에 해당한다.

④-③ 유형의 월경지로는 순흥 창락면을 들 수 있다. 창락역이 위치한 순흥 창락면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월경지로 편성된 곳이다. 역은 그 성격상 중앙정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단위이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창락역은 죽령의 남쪽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요충지였다. 고려는 후삼국시기 경상도 방면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죽령의 장악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낙동강 상류 지역 일대를 후삼국통일전쟁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하였다.<sup>60)</sup> 고려시대 驛道 편성에 있어서도 창락역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平丘道의 屬驛으로 편제되었다.<sup>61)</sup> 한강 유역이 고려의 도읍인 개경과 가까운 만큼, 창락역을 평구도에 소속시킨 것은 죽령 교통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다.<sup>62)</sup> 따라서 창락역이 순흥 월경지로 존재했던 사실은 중앙정부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서 월경지가 얼마든지

60) 정요근, 2009 「후삼국시기 고려의 ‘주(州)’·‘부(府)’ 분포와 그 설치 의미」 『역사와 현실』 73, 174-179면.

61) 『고려사』 권82, 志36 兵2 站驛.

62) 정요근, 2008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8-71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충지였던 창략역을 가까운 기주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순흥의 월경지로 설정한 것은 창략역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일찍이 후삼국시기 고려(혹은 태봉)에서는 康公萱을 知基州諸軍事로 파견하는 등 기주를 중시하기도 했지만,<sup>63)</sup> 그것은 군사적 역할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삼국통일 이후 기주의 중요성은 약화되었으며, 순흥과 기주 모두 속현으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순흥은 충렬왕대에 단독으로 주현이 된 것에 비해, 기주는 고려말에야 은풍과 통합되어 주현이 되었다. 이는 곧 기주가 순흥에 비하여 인구나 물산 등 규모가 훨씬 작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략역이 순흥의 월경지가 된 것은 창략역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 표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64)</sup>

창략역과 유사한 사례로, 전남 지역의 智島는 조선 세종 때 목장이 설치되면서 나주의 월경지가 되었던 대표적인 ④ 유형의 월경지이다.<sup>65)</sup> 순흥 주민들 중 일부가 창략역 지역으로 이주하여 驛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창략역을 순흥에 소속시키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우선하였을 것이므로, 창략역 지역은 ④ 유형의 월경지로 분류된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나머지 8곳 월경지(순흥 대용산면·와단면, 봉화 물야면·북면·상동면, 영천 북면·임지면, 의성 우곡면)는 원 소속 군현 주민들의 이주로 인하여 발생한 ⑤ 유형의 월경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8개 월경지는 대개 산간 지대의 분지나 하천변의 좁은 평지에 위치하였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 원인을 정확히 고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랜 왕래·교류(④-⑤)에

63) 康公萱의 知基州諸軍事 파견과 관련해서는 윤경진, 2001 「나말여초 성주(城主)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실』 40, 118-122면 참조. 한편 全基雄, 1989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 4, 3-18면에서는 강공훤이 기주에 기반을 둔 친신라적 지방 세력이었다가 이후 고려에 귀부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64) 유사한 사례로, 조선초기에는 菁好驛을 대읍인 水原에서 소읍인 振威로 이속시켰다가, 진위와 청호역 양자에 모두 부담이 되자 다시 수원으로 환속한 사례가 있다(『세종실록』 권24, 세종 6년 4월 병인 :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6월 갑진 :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3월 기해).

65) 정요근, 2013 앞의 논문, 21-28면.

발생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거주지의 개척·개간에 의한 월경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국가적 강제에 의한 집단 이주(⑧-①)인지, 아니면 전란·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⑧-②)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⑧-① 혹은 ⑧-② 유형 중 어느 경우인지는 단연하기 어렵지만, 이 8개 월경지는 원 소속 군현의 주민들, 혹은 그 군현의 통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주하여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군현 간 경계의 복잡성은 그와 같은 각 군현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였다.

8개 월경지 중 순흥 대용산면과 영천 북면은 순흥과 영천 서로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있는 월경지이다. 합리적인 영역 지배를 추구한다면, 대용산면을 영천의 영역으로, 북면을 순흥의 영역으로 맞바꾸어 월경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도지리지』에 따르면, 영천 북면 지역에는 民戶 91, 田地 425결이, 순흥 대용산면 지역에는 민호 50과 전지 132결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서로 간에 규모가 맞지 않아 영역 교환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것의 해결은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 촌락들을 끼워 넣어 영역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서로간의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6)</sup>

사료 상에는 두 지역의 월경지 문제 해소를 위한 어떤 시도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순흥의 경우, 200년 이상 혁파되었다가 1683년 복구된 후에도 혁파 이전처럼 창략면과 대용산면 지역을 그대로 소유했다. 이는 해당 군현과 소속 월경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매우 강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강고함은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로부터 기원하는 해당 월경지에 대한 지배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용산면 역시 창략역과 마찬가지로 고려초기부터 월경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영천이 주현으로 승격하는 1143년보다 후대에 월경지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봉화 상동면 월경지는 고려중~후기 이전에 월경지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말선초 봉화의 주현 승격 시에 월경지로 생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부인하

66) 이와 유사한 사례로, 조선 세종 때 陰竹縣監 林穆은 관내 無極驛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무극역 부근의 충주 소속 지역과 충주 근처의 陰竹 소속 지역을 맞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권35, 세종 9년 1월 신해).

기 어렵다. 상동면 월경지는 향·부곡 등의 별도 행정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일반 촌락 기원의 월경지였다. 비록 여말선초 지방제도 개편에 의해 월경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봉화 본 영역 주민들과의 친연성이 전제되어 봉화의 영역에 편입되었을 것이므로, ③ 유형 월경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생 원인에 따라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들을 분류하면, 크게 행정구역 조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발생한 월경지와 주민들의 이주 및 왕래가 우선하여 발생한 월경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월경지 15곳 가운데, 전자의 유형에는 7곳, 후자의 유형에는 8곳이 해당하였다. 전자의 유형은 지방제도의 정비, 어염 등의 물자 공급, 국가 필요의 시설 확보 등의 발생 원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월경지가 6곳, 국가 필요의 시설 확보를 위해 발생한 월경지가 1곳이었다. 반면 후자의 유형은 국가적 필요·요구에 따른 주민의 이주, 전란·재해로부터 벗어나 생존하기 위한 이주, 과거로부터의 오랜 왕래를 통한 친연성 등의 발생 원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낙동강 상류 지역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월경지 8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 4. 맷음말

낙동강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현 경북 안동·영주·봉화·예천·의성 지역에는 조선시대에 다수의 월경지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 월경지들은 15곳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월경지로서의 발생 시점이 고려 중~후기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이 지역에서 여말선초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월경지가 전체 월경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월경지의 발생과 소멸이 어느 한 시점의 산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15곳의 월경지 가운데 확실히 여말선초에 월경지가 된 곳은 4곳이며, 월경지로서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2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9곳은 고려 중~후기 혹은 그 이전에 월경지가 된 곳들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근래 월경지의 분류와 관련하여, 발생 기원을 기준으로 속현 기원형, 특수 행정구역 기원형, 특수 목적 기원형, 기타 일반 촌락형의 4가지로 구분하고, 本邑과의 연결루트 및 지형적 입지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육로 연결 우선형과 해로 연결 우선형, 그리고 도서형의 3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은 내륙 지대이므로 후자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모두 육로 연결 우선형에 해당한다. 반면 전자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낙동강 상류 지역 15개 월경지 중 향·부곡에 기원을 둔 곳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고려후기에 속현으로 승격된 3개 월경지(향·부곡 6곳 위치)를 제외하면 향·부곡에서 직접 월경지로 된 곳은 4개 월경지(향·부곡 6곳 위치)에 지나지 않는다. 4개 월경지 중 소천부곡만이 전통적인 대읍(안동) 소속이었고, 나머지 3개 월경지는 속현 소속 혹은 속현으로부터 승격한 주현 소속의 월경지였다. 위치를 알 수 있는 이 지역의 향·부곡 23곳 중, 4개 월경지에 위치했던 향·부곡은 불과 6곳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 향·부곡 중에서도 월경지에 위치했던 곳의 비중 역시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었다.

반면 15곳의 월경지 중 속현 기원 월경지는 향·부곡에서 고려후기에 속현으로 승격한 3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5곳이다. 그 외 순흥 창략면은 驛(창략역)의 형태로 월경지가 되었고, 나머지 5곳은 일반 촌락의 형태로 월경지가 되었다. 한편 15곳 월경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1172년부터 1390년까지 관할 주현에 월경지의 형태로 소속되었던 속현이 2곳(은풍·기주) 있었다. 이 2곳은 고려 말 지방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월경지적 입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들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하여, 기준의 월경지 분류기준 외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추가 제시하였다. 기준의 분류로는 월경지의 기원적 형태가 월경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향·부곡 기원 월경지에 대해서만 주목하다 보면, 해당 월경지들이 과거에 향·부곡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월경지가 되었다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 않음은 이미 본문에서 논증된 바 있다. 이는 과거 향·부곡이었던 사실이 어떤 지역을 월경지로 설정하는 데에 하나의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월경지로 설정되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월경지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행정구역의 우선 조정에 따라 발생한 월경지’와 ‘주민들의 이주·왕래가 선행하여 발생한 월경지’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낙동강 상류 지역 15곳의 월경지 중 전자에 7곳, 후자에 8곳이 해당하였다. 다시 전자의 월경지는 지방제도의 정비, 어염 등 물자 공급, 국가 필요의 시설 확보 등의 발생 원인으로, 후자의 월경지는 국가적 필요·요구에 따른 주민 이주, 전란·재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주, 오랜 기간의 왕래를 통한 친연성 등의 발생 원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발생 기원, 본읍과의 연결 및 지형적 입지, 그리고 발생 원인 등 이상 세 가지 월경지 분류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월경지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타 지역 월경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분류는 유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필자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분석에 기초하여 고려시기 향·부곡의 생성과 유지, 사회적 위상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월경지, 낙동강 상류 지역, 월경지 발생 시점, 월경지 발생 기원, 월경지 발생 원인

투고일(2015. 8. 3), 심사시작일(2015. 8. 5), 심사완료일(2015. 8. 21)

〈Abstract〉

Study on Territories of a County Surrounded by Other Counties  
Located on the Upper Region of Nakdong-gang River  
in Goryeo and Joseon Era

Jeong, Yokeun \*

On the upper region of Nakdong-gang River where current Andong and Yeongju cities and Bonghwa, Yecheon and Uiseong countie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are located, some Wolgyeongji, territories of a county surrounded by other counties were spread in Joseon era. Those Wolgyeongji are classified into fifteen places, and most of them became Wolgyeongji in the middle and later Goryeo or earlier than that period. It means that the number of Wolgyeongji occurring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enforced in end of Goryeo dynasty and early years of Joseon is not so many of those, and occurrence and extinction of Wolgyeongji is not the product from a certain fixed time but one could be appeared at any time. In addition to classification criteria like Wolgyeongji classification based on the origin of occurrence proposed in a previously published article, Wolgyeongji classification criterion based on the cause of occurrence should be newly utilized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n Goryeo and Joseon era's Wolgyeongji.

**Key Words :** Wolgyeongji(Territory of a County Surrounded by Other Counties),  
Upper Region of Nakdong-gang River, The time of Occurrence of  
Wolgyeongji, The Origin of Occurrence of Wolgyeongji, Cause of  
Occurrence of Wolgyeongji

---

\* Assistant Professor, History Department of Duksung Women's University.